전남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ART FESTA' 전이 오는 2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아트페어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 출신 작가 70명이 참여했다.

개교 70년…전남대 출신 작가 한자리

'ART FESTA' 전 21일까지 금호갤러리…14일 개막식
한국화·조소·공예 등 동문 예술인·교수 등 70명 참여

전남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전남대와 전남대 총동창회 주최로 1년 내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미술계에 큰 역할을 해온 전남대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대 개교 70주년 기념전시 'ART FESTA' 전이 오는 2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7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메머드급 기획인 이번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예술대학 총동문회 소속 미술학과 동문회가 기획했다.

전남대는 1974년 출발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시작으로 미술교사와 작가를 양성해왔다. 예술대학 미술학과는 그보다 늦은 1981년 국악과, 음악과와 함께 신설됐고 미술교육과가 지난 2002년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서양화, 한국화, 조소, 공예, 미술이론 등의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시각디자인, 공예와 미술평론에 이르는 동문 예술인과 함께 현재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참여했다. 각 전공별로 전시회를 연 적은 있지만 모든 장르의 작가들이 한 데 모여 작품을 선보이는 건 드문 일이다.

참여작가는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양화의 김미애·김제민·노정숙·류영도·박주하·서기문·송필용·이정기·이금주·조성숙·주성범, 한국화의 강일호·류현자·백현호·윤남웅·윤세영·이구용·이선복·이창훈·임종두·조문현·조병연·허달용 허진 등이다.

또 조소의 김세진·김정민·박정용·박형오·배수민, 공예의 김선영·김윤주, 디자인의 곽보영·나경훈·박성휘 등이 참여했으며 이론의 강륜희·김규형·김선우 등은 전시도록에 관련 글을 실었다.

이번 전시는 아트페어의 판매형식을 통해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기부행사로 진행, 의미를 더한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6시 열린다.

윤병학 전남대 예술대학 총동문회 회장은 "전남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전남대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또 수익금을 모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어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민족극협회 '박효선 연극상' 첫 수상작
나무닭연구소 '전태일-네 이름이 무엇이냐'

16일 토박이 민들레 소극장
시상식·하이라이트 공연

(사)한국민족극협회는 '2022 박효선 연극상' 수상작으로 나무닭연구소의 '전태일-네 이름이 무엇이냐'〈사진〉를 선정했다.

'박효선 연극상'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도청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이었으며 항쟁 이후 5·18을 소재로 한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을 창작해 오월의 진실을 알린 연출가이자 작가 고(故) 박효선(1954~1998)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작 '전태일-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가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세상에 저항했던 전태일의 고민과 투쟁을 그리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전태일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적 조망 속에서 이해하고 만나고자 하는 시도와 고민에서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작품은 지난 2000년 전태일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초연한 후 2020년 50주년 기념공연으로 재창작됐다. 이후 2020년부터 전국순회공연을 기획하면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극에 참여해 제작과 공연미학면에서 풍성하고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5·18 광주민중항쟁,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성차별 사회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총 12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극단 토박이 '민들레 소극장'에서 열리며 수상작 하이라이트 공연이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폐허가 된 장소에 쌓인 시간의 흔적

이설 초대전,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1996년부터 지역의 젊은 작가 발굴 지원을 위해 광주신세계미술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이설 작가 초대전이 오는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시간이 정한 장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폐허가 된 장소에 쌓인 시간의 흔적을 관조하며 자신만의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해 미술제 심사평에서 이설 작가는 "모종의 장소에 대한 성실한 고찰과 관심, 그리고 그 장소로부터 받은 묘한 느낌의 형상화를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는 미덕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폐허가 된 장소를 배경으로 삼거나 그곳에서 발견된 사물을 화면 전면에 내세운다. 급변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버려진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화폭에 풀어내는데, 그 잔해들은 무의속에 저장된 기억을 소환한다.

작가는 풍경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사물의 이미지를 오려낸 듯한 '컷-아웃(cut-out)' 기법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마치 화면에서 잘라낸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해당 부문을 흰색으로 칠해 상실과 부재를 상기시킨다.

이번 전시에 나온 'cut-out'연작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과거와 그 풍경이 사라져버린 현재의 모습이 한 화면에 중첩돼 부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그 자리 그대로' 등의 작품에서는 사물을 오려 낸 후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 붙이기도 한다.

세종대 회화과를 거쳐 홍익대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두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다리'

5·18 퀴즈 풀고 독립영화 '여보세요' 감상

17일 'ACC 나잇, 비밀탐험 245'…부지영 감독과 대화 시간도

부지영 감독

'여보세요'

ACC 야외 공간을 누비며 퀴즈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임무 달성 형식의 투어'와 독립영화 '여보세요'를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기획한 프로그램인 일명 'ACC 나잇, 비밀탐험 245'. 오는 17일 오후 7시 ACC 일대에서 체험형 여행과 독립영화 감상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ACC 나잇'은 말 그대로 해가 저문 저녁 무렵에 ACC를 관람하는 체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ACC 나잇, 꽃의 선율'을 시작으로 첫 선을 보였다.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임무 달성 형식의 투어'는 ACC 야외 공간을 누비며 퀴즈로 풀어내는 형식이다. 퀴즈를 통해 당시의 실상과 5·18정신의 의미 등을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독립영화 '여보세요'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정은'이 어느 날 북한 여성으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를 엮은 작품이다. 부지영 감독을 초청해 영화의 기획 의도와 창작 과정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바람 속 바리톤 권용만 독창회

17일 오전 11시 한옥콘서트 홀 광주디엠홀

바리톤 권용만 독창회가 오는 17일 오전 11시 한옥콘서트 홀 광주디엠홀(광주시 동구 중앙로 148번길 11-27 호남동성당 옆)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칼다라 '마음의 영혼', '마음속의 느끼네', '친구인 숲이여'와 슈베르트 '마왕', '가니메트', '아틀라스', 쿠르티스 '그대를 너무 사랑하오', '넌 왜 울지 않고', 라벨 '돈키호테의 노래 중 공상적인, 서정적인, 축배', 빅시오 '엄마' 등 12곡으로 채워진다.

바리톤 권용만은 세계 최고의 바리톤인 레오 누치에게 'Voce di Madonna (성모 마리아가 주신 소리)' 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럽연합정부와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 그리고 토스카니니 재단 공동 프로젝트인 '미토스(Mythos) 최고연주자' 과정에 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후 소프라노 비르질리아 쩨아니와 연출가 벱베 토마시의 문하에서 2년 과정을 졸업했다.

바리톤 권용만

권용만은빛소리오페라단과 코지판투테 공연을 통해 광주시민 앞에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최근 라트라비아타 연속공연의 해설을 맡아 오고 있다. 이번 독창회는 (사)빛소리오페라단, 전남오페라단 주최로 마련됐으며,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천현주가 함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차기 관장
'적격자 없음'…재공모 계획

지역 예술계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립미술관 차기 관장 선임이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임용시험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 29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공모 일정을 진행,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었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 작가 등 모두 5명이 서류를 접수했고, 5명이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 면접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 현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선정될 당시 17명이 원서를 냈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지원자가 극히 적었다.

광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현 전승보 관장의 임기는 오는 16일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구용 교수, '어제의 사랑과 내일의 사랑' 강연

광주문화재단 렉처콘서트, 1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사랑'과 '친밀성'을 주제로 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빛고을융합복합렉처콘서트 여섯번째 강좌는 '어제의 사랑과 내일의 사랑(친밀성의 구성과 구조의 변경)'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이며 강사는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박구용 교수

박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친밀성에 대한 욕구와 요구', '전통적인 친밀성 구성의 원칙과 과정', '즐거움, 이익, 탁월성에 따른 친밀성의 구성', '사랑의 원형과 시민종교, 그리고 타인 속에서 자기로 있음(헤겔)' 등을 모티브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광주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5·18 기념재단 이사 및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우리 안의 타자', '도구적 이성 비판' 등을 펴냈다.

강의와 공연이 결합된 렉처콘서트답게 이날 공연은 나운영 곡 '달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출연진은 소프라노 문수영, 첼로 나인국, 바이올린 윤성근, 플룻 이주혜, 피아노는 김한나씨 등이다.

한편 다음 렉처콘서트는 10월 13일 김주연 설치미술가가 '자연을 메타포한 예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 전화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